

Epilogue File



반드시 게임 종료 후 여십시오.
사건의 전말과 범인의 정체를 포함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해답편: 최승배 살인 사건의 진상 -W의 회고로부터

...그 산장에서의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그보다 좀 나중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 유명한 '캔디걸'의 최승배 감독이 촬영장에서 죽은 사건 말이다. '그 유명한'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정작 이 사건의 자세한 진상이나 조사 내용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외압이 있었으리라.

공개되지 않은 경찰 조사 기록에 따르면 유력한 용의자는 네 명이었다. 시체는 발견 당시 목이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는데 꽤 높은 조명 레일에 묶여있었다고 한다. 시체의 목에는 줄로 조인 자국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목에서 귀 뒤로 비스듬히 이어진 U자형 자국, 또 하나는 직선으로 쏠린 자국. 사인이 두 개일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는 사후에 생긴 것이다. 평지에서 목이 졸려 사망하고 사후에 매달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장에는 이렇다 할 생체적 증거나 범인을 특정할만한 흔적이 남지 않았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다. 촬영 당일에는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간 특별한 갈등도 없었다. 이 사실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 사건이 내부인에 의해 일어난 계획 살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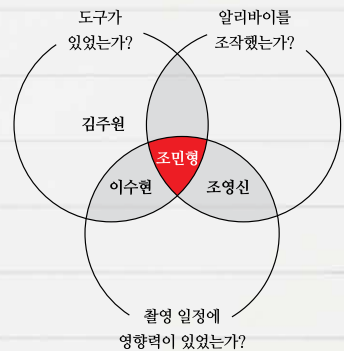
이 사건에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시체가 매달린 위치다. 현장에는 시체를 위로 올리거나 줄을 아래로 내릴만한 도구가 없었다. 하지만 조민형에게는 사다리가 있었고 김주원에게는 로프가 있었다. 이수현은 오퍼레이션 룸을 통해 조명 레일을 내릴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도구가 없었던 것은 사실 조영신뿐이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다. 촬영이 없는 날이 아니라 촬영 당일 촬영장에서 범행이 저질러졌다. 계획 살인이라는 전제에서 생각해보면 범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실행한 셈이다. 전형적인 극장형 살인이다. 흥미롭게도 이날은 원래 촬영이 없는 날이었는데, 전날의 촬영이 갑자기 연기되었다고 한다. 촬영의 연기가 감독의 변덕이 아니라 범인의 인위적 작업에 의한 것이라면 이 장소와 이 날짜가 범인에게 꽤 중요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수현은 피해자의 측근이었고 조민형도 마찬가지로 조영신은 VIP다. 촬영 날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 정도일 것이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알리바이다. 어쩌서인지 네 사람 모두가 알리바이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특히 두 사람, 조영신과 조민형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사전 조작했다. '무언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조영신의 캐리어와 조민형의 사다리는 밖에 세워둔 흔적이 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셈인데, 차이가 하나 있다. 조민형의 경우 범행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다리를 그 조작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범행 가능성과 알리바이 조작의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유력한 용의자는 조민형이다. 결정적으로 조민형은 촬영 날짜를 연기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경험을 의해서 말이다. 없어졌다는 11월 30일의 대본도 조민형의 차에서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 분명 여기에는 대단 이사장이나, 그분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또 그녀가 개입했을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정말 우연일까? 그리고 나 역시 꺼림칙한 점이 있다.

이 사건은 산장에서 그 사건 이후 강력한 카르텔의 중심점이 되었던 그분의 과거가 남긴 상흔 중 하나다. 그리고 J의 자살이 10년을 돌아서 피워낸 비극이다. 하지만 비극은 때때로 희극으로 되살아난다. 물론 모든 관객이 웃을 수 있는 희극은 없다.



후일담: 10년 전 사건

조승원은 실력 있는 조감독으로 연출부 내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다. 감독의 가학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승원은 그 고통마저도 성장통으로 생각하며 견뎌낼 만큼 영화인으로서의 꿈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캔디걸' 촬영 당시 승원은 자기 신작 영화를 통한 감독 데뷔가 내정된 상태였다. '캔디걸'은 최승배 감독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할 만큼 신경 쓰고 있던 작품이었던 데다, 상당한 투자가 들어간 작품이었기 때문에 최승배의 신경도 예민해져 있었다. 그만큼 승원을 향한 학대도 늘어났지만, 그는 그래도 최승배 밑에서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성심성의껏 일에 몰두했다. 승원의 의욕을 더 돋구었던 것은 아직 어렸던 영신의 존재였다. 승원은 '캔디걸'을 찍으며 영신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았다. 영신에게 항상 "너는 대배우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영신도 그의 말을 믿었다. 감독이 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있던 그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영신과 나중에 대감독과 대배우가 되어 촬영장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한다.

영화인으로서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꿈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11월 30일, 승원의 감독 내정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새 감독을 추천한 사람은 바로 최 감독이었다. 승원은 감독이 자신의 독립을 허락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 오랫동안 보류되었던 격통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절망과 분노, 집착과 열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그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고, 마지막으로 '캔디걸'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시도했다. '캔디걸'은 대작이 될 것이 분명했다. 승원은 최승배 인생 최대의 명작에 자신의 이름으로 재를 뿌리고 싶었다.

12월 1일, 조승원은 촬영장 세트에서 카메라를 들어둔 채로 목을 탔다. 사체의 첫번째 발견자는 최승배였다. 그는 승원의 자살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고, 먼저 유서를 숨긴 후 스태프들을 불러모았다. 사건이 자살로 마무리된 이후 그는 만일을 위해 마지막 날 촬영분의 폐기를 지시했으며, 이때부터 휴식시간에도 촬영장을 비우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승원의 죽음이 담긴 테이프는 사라졌지만, 그의 자살사건은 신문지상을 통해 꽤나 알려졌다. 처음 보도된 기사에서 본명 대신 'J'라는 이니셜이 쓰였기에 이후로도 계속 그는 'J'라는 이니셜로 불렸다.

최승배는 분명 가학적인 성격이었지만, 사실 딱히 승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새 감독을 추천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추천한 새 감독은 그의 친척이었고, 힘 꺼내 쓴다 하는 가문의 자제였다. 그는 단지 스폰서가 필요했고, 그에 따른 청탁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다고 갑작스러운 조승원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낀 것도 아니다. 그가 느낀 감정은 오히려 호기심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조승원의 고통이 기록된 유서를 기념 삼아 간직했다. '캔디걸' 이후로 최승배는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리고 그의 힘이 커질수록, 그의 자신감은 가학적 욕망으로 변해갔다.

최승배는 거장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캔디걸'의 배우 조영신의 발전이었다. 조영신의 휘황은 어느새 최승배를 제쳤고, 최승배는 자신감의 한편에 조영신에 대한 굴욕감을 숨기고 있었다. 그렇기에 조영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떨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재료삼아 '대배우'를 새로운 학대대상으로 만들 욕망을 꿈꾸기 시작했다.